

본 자료는 '17. 8. 17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 도 자 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(한국전자전 사무국)	작 성	전시마케팅센터
		담 당 자	이협우 과장
		전화번호	02-6388-6064

http://www.kes.org

E-mail: liwoo@gokea.org

Fax : 02-6388-6069

『 2017 한국전자전 (Korea Electronics Show) 』

키워드는 '4차 산업혁명', '중소벤처 성장지원', '일자리 창출'

□ 한국전자전이 제시하는 "4차 산업혁명"

- 글로벌 융합기업들이 참가하여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초지능·초연결 기술(AI, IoT, 5G 등)을 확산하고 新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.
- (메르세데스 벤츠) 독일 본사차원에서 **한국전자전 최초** 전시참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, 메카트로닉스, 인공지능(AI) 등이 결합된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보여주는 한편 **기조연설**을 통해 **이종기술·분야 융합의 글로벌기업 미래상을 보여준다.**
 - 이밖에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족된 '자동차융합 얼라이언스'가 자동차 주력산업과 IT·SW 융합촉진의 장을 구성하여 참가하고, 국내 대표 전기차 전문기업인 '파워프라자'도 최신 전기차를 선보인다.
- (인텔) **한국전자전 최초** 본사 영업&마케팅그룹 부사장이자 인텔 코리아 대표 권명숙 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5G/자율주행/인공지능/클라우드 등 **新성장분야**를 주도하는 인텔의 비전을 공유한다.

□ "중소벤처 혁신성장 지원"

< 글로벌 진성바이어 초청 수출전략 상담회 >

- 전 세계 28개국 70여 개사의 진성바이어를 선별, 한국전자전 기간 국내 참가업체들과 1대1 맞춤형 수출전략 상담회를 통해 중소·중견 기업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한다.
- 국내 ICT산업 수출 및 수입 1위국 중국에서는 2016년 매출액 4.7억 달러에 달하는 국영방송사인 CRI 산하 TV홈쇼핑 ‘Global Home Shopping’ (중국 홈쇼핑업계 3위)을 비롯하여 5위권인 ‘CNR Home Shopping’, 9위권 ‘JiaYou Home Shopping Group’ 뿐 아니라, 세계 1위 백색가전 브랜드 ‘Haier’과 세계 TV시장 점유율 3위 ‘Hisense’ 구매담당자가 새로운 거래선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전을 찾는다.
- 이 밖에 SK하이닉스, 삼성 등 국내 기업과 연 거래액만 1.2억 달러에 달하는 독일 IT제품 공급업체 ‘TTC Trade and Consulting GmhH’ 와 국내기업과 거래액 3천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대형 유통그룹 ‘NEO Group’, 미국 4위 통신사 ‘Sprint’, 중동 지역에 통신서비스 장비 제공 및 국가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카타르 ‘Al Arab Group Enterprises’ 를 비롯하여 이미 국내 중소기업과 활발히 거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‘Professtama Development Group’, UAE의 ‘Busineelink Electronics’ 등 그 어느 해보다 국내 우수 참가업체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매력 있는 글로벌 바이어들이 조기에 확정되어 한국전자전을 방문한다.

* 참여국 : 북미(미국, 캐나다) / 남미(브라질, 멕시코, 콜롬비아) / 유럽(독일, 영국, 덴마크, 오스트리아, 체코, 헝가리) / CIS(러시아) / 중동(카타르, UAE, 이스라엘, 쿠웨이트) / 아시아(중국, 일본, 인도, 대만, 홍콩, 태국, 필리핀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,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) 28개국

< 유망 중소벤처 투자유치 상담회 >

- 한국전자전 최초, 벤처캐피털협회와 공동으로 창업투자사 및 VC 약 20개사와 유망 중소벤처기업 간 1대1 '투자유치 상담회'를 개최하여 유망 ICT기업을 발굴,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, 더 나아가 투자연계를 통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.

□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"일자리창출"

- 한국전자전 최초, 서울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효율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전자전 기간 '맞춤형 채용상담회'를 개최한다.
- 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위한 현장체험 등 수요지향형 채용마케팅을 통해 기업과 청년구직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채용성과를 도출하고 참여업체에게는 서울산업진흥원 채용지원사업의 혜택과 함께 실질적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- 한편, 제48회 한국전자전은 2017년 10월 17일(화)부터 20일(금)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외 약 500개사가 참가, 어느해보다 다양한 융합제품과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7만여명의 관계자가 방문하여 전자·IT뿐 아니라 타 업종 간 융합촉진 플랫폼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.